

해설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세상에 없던 **해설지**

평가원 9월 모의고사

최인호 · 박석준

www.megastudy.net
www.howandwhyedu.com

최민호

- 연세대학교(서울) 국어국문학과 졸
- 연세대학교(서울) 대학원 국어국문학 전공
- 메가스터디 (주) 국어 7년 연속 1위 강사
- 메가스터디 (주) 논술 8년 1위 강사
- How&Why (주) 대표

- 前)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_공부법강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신문_논술출제평가위원
특목고 논술 초빙 강사

2016 대한민국 선정 인문학 작가

저서

[수능 언어]

- <비문학 쓰기 300제>_디딤돌
- <샅틈없는 어휘어법 1000>_이투스
- <수능 클라이맥스>_대일출판
- <수능 필살기(비문학) 과학·기술>
_메가박스 외 다수
- <How N Why 열심히의 배신 시리즈>

[논술과 면접]

- <이야기 논술 구술>_한샘출판
- <논술 클라이맥스>_늘품미디어
- <논술, 신문을 말하다>_문화유람
- <논술의 정석>_도서출판 키움
- <짧지만 긴 지식들>_디비전 외 다수

[인문학]

-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3>_21세기 북스
- <책, 함부로 읽지 마라>_밀리언스마일 북스
-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다>_프라하
- <부유하는 단어들>_인물과 사상사
- <모순수업>_나무나무출판사
- <비와 바람의 기억> : 출간 예정



박석준

- 반에서 28등 하던 야구선수
- 연세대학교 (서울) 중어중문학과 졸
- 한국장학재단 인문 100년 장학생
- 연세대학교 성적 최우수상 수상
- 대학생 입시 멘토링 동아리 <삼법멘토> 회장
- How&Why (주) 대표
- 열심히의 배신 시리즈 공동 저자

고전시가 + 현대시 + 비문학

[16~20]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과거 급제 추구 → 은자의 삶 추구

[16~20] 고전시가+현대시+비문학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보기>의 임금보필, 효도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지문에서 확인 필요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호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지문에서 확인 필요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지문에서 확인 필요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지문에서 확인 필요 <보기>에 따르면 ‘거절’을 해야 함

!HOW & WH?

- 1. <보기>를 통한 처한현실 찾기
- 2. <보기>와 <선택지>를 통한 지문 분석

왜 정답일까?

1. <보기>를 통한 처한현실 찾기

① <보기>를 통한 처한현실 찾기
과거 급제 추구 → 은자의 삶 추구
백성에게 베풀기 유교적 출처관 자신을 수양

2. <보기>와 <선택지>를 통한 지문 분석

② 생평(生平)에 원호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화자가 원하는 것 = 긍정적 속성 = ①번 선택지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고져 호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호노라 <제1수>
주석에서 십 년을 허둥지둥함
↓
<보기>에서 과거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 ②번 선택지
행장유도(行藏有道)* 호니 버리면 구태 구호라
주석의 내용이 <보기>의 유교적 출처관 →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기>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추구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 ③번 선택지
현실 정치 참여의 권유에 대한 거절 = ④번 선택지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호니 오라 말라 호노노 <제16수>
주석의 내용은 은둔을 하지 말라는 뜻
↓
현실 정치 참여를 권유하고자 하는 말
∴ <보기>에 따라 현실 정치에 대한 거절의 내용과 관계 X

정답: ⑤

EBS와 어떻게 다르니?? EBS 반영내용 확인하기

EBS <보기>

선생님: 윗글을 보면 ‘치군택민’과 ‘조월 경운’ 사이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치군택민’은 ‘임금과 함께 정치를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로 세상에 나가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삶을 뜻하고, ‘조월 경운’은 ‘달을 낚고 구름을 경작한다.’라는 말로 자연에 묻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지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대부로서 화자는 ‘치군택민’과 ‘조월 경운’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이지요.

EBS의 <보기>의 핵심

충성,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삶 VS 자연에 묻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갈등

★ ∴ EBS를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EBS 작품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 X
문학은 <보기>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수!!!!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과거 공제 추구 → 은자의 삶 추구

[16~20] 고전시가+현대시+비문학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과거 공제 추구 은자의 삶 추구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호'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번 <보기>문제를 토대로 (가) 지문 해석

16번 문제에서 (가)와 관련없는 선택지 제거하기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설의법 <1수> '어찌 다르리' '아무 덴들 어떠리' → 내적 갈등의 해소 정서 강조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를 통해 답을 확정!

왜 정답일까?

<보기>와 <선택지>를 통한 지문 분석

<보기>를 통한 처한현실 찾기

과거 공제 추구 → 은자의 삶 추구

백성에게 베풀기 유교적 출처관 자신을 수양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口東南)* 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호는 뜻을
 주석에서 '열심히 공부함' = 과거 공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보기>에서 '과거 공제는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통로' = ①번 선택지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은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노라 <제4수>
 강호에서 노는 것 VS 성주를 섬기는 것 내적 갈등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名哲君子)는 이물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우리라
 = ③번 선택지

<제8수>

빈천거를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 ⑤번 선택지

성현(聖賢)의 가신 길히 만고(萬古)에 혼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내적 갈등 해소 = ④번 선택지

핵심 시어 문제를 통해 처한 현실을 찾을 수 있다. 선택지 논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16~20] 고전시가+현대시+비문학

핵심 시어 문제 → 처한 현실 찾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진'의 분위기를 하강적 이미지 보여 주는군. 부정적 분위기 추론 가능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 하는군. 부정적 현실에서 슬픔의 정서 추론 가능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선택지 간 논리가 틀리다
선택지 ②④⑤에서 처한 현실 = 추위, 가난
 화자의 정서 = 한, 슬픔, 눈물 **그러나** 선택지 ③ 만 행복의 정서를 서술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가난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용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가난으로 인한 슬픔

왜 정답일까?

1. <선택지>를 통한 처한 현실 찾기

① <선택지>를 통한 처한 현실 찾기

- 1. 가난, 추위
- +
- 2. 한의 정서, 눈물, 슬픔

2. <선택지>를 통한 지문 분석

③ 진주 장터 생어물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어둠이 깔리는 부정적 분위기 = ① 선택지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가난으로 인한 고난, 괴상 = '한' = ② 선택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가난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를 떠올림 = ④ 선택지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썩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울 엄마의 눈물

정답: ③

19번 문제를 토대로 (나) 지문 해석

16번 문제에서 (나)와 관련없는 선택지 제거하기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말없이 글썩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 지문은 <보기>와 같이 기준을 제시한다

[16~20] 고전시가+현대시+비문학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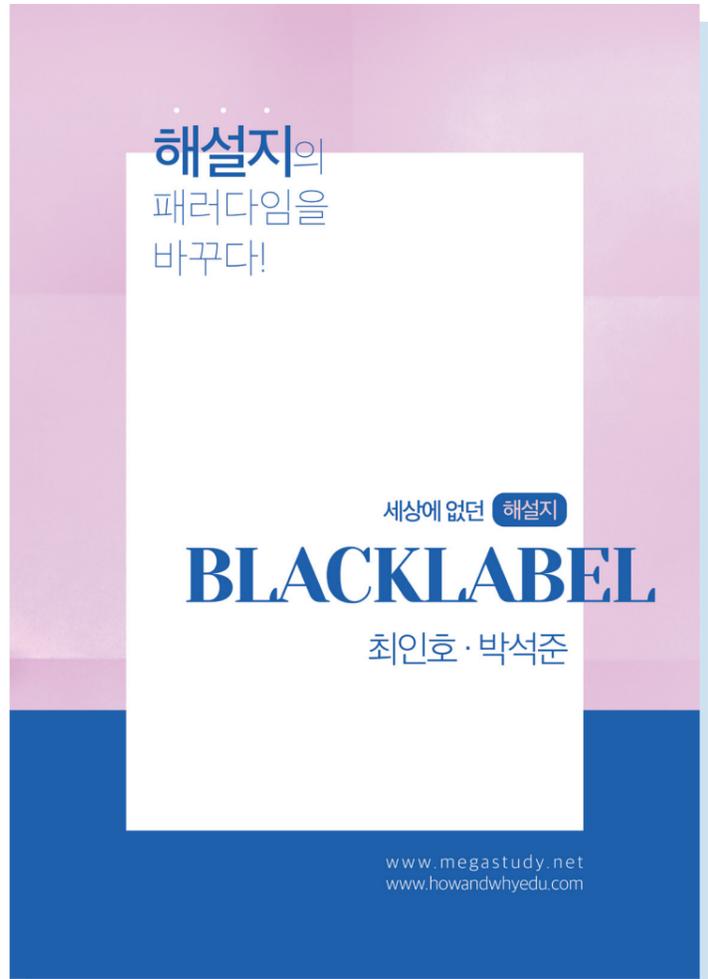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위랑 / 두 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다)에서 고전 시가는 외적 규율이 전제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다)에서 동일 요소의 반복은 리듬 형성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오’를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다)에서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다)에서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이런 모의고사 해설지 본 적 있니??



BLACK LABEL 1 모의고사 해설서 분량

| | |
|----------|-------|
| 1회 | 50페이지 |
| 2회 | 46페이지 |
| 3회 | 38페이지 |
| 4회 | 40페이지 |

해설서를 통해 공부하는 모의고사
압도적 분량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모의고사

BLACK LABEL 2
추석 연휴 이후 출간 예정

고전소설

[26~28]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보기>의 내용과 **불일치** 하면 정답이다!

[26~28] 고전소설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③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보기>의 내용과 불일치 → 정답**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왜 정답일까?

1. <보기>를 통해 기준 잡기

① **특정 대목을 확대, 변형**

- 1. 용력 +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 추가
- 2. 활빈당 우두머리 되는 장면: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
- 3.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 = 병조판서 제수
→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는 바를 얻는 것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독자들과의 욕망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 X

2. <선택지>를 통한 지문 분석

②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 X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

정답: ③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그중에 **상라의 사립을 보니, 청모원삼에 자금관을 쓰고 딸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
-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나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과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불지이다.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묻을,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냐?"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흥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라 시험할 쏘냐?"
- ③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들 보면 알리이다."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라 나를 보라."
"신의 역사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즉각적 태도를 보임**
- ④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을 보고 다 나라 ~~절하여~~ 말, "부친께서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흥 의정 말,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나,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흥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나 각각 일곱 점이 있나지라.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신의 똥이 천배에서 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똥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 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궁을 ~~뜯어~~ 찢어치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으로, 상의 어위대장 이첩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으로, 또 신의 가슴에 경서라 병서라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천하장사르다!"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똥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공례를~~ 따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한 편이 되는 모습**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제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천하장사르다!"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똥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공례를~~ 따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을 통해 상징군이 됨**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침화~~하는 역할을 한다.

EBS와 어떻게 다르니?? EBS 반영내용 확인하기

EBS <보기>

길동을 잡아들이라 엄명함. → 길동 잡는 일을 그만둠.

EBS의 <보기>의 핵심

길동을 잡는 과정에서 **임금의 태도 변화가 핵심**

9월 평가원 <보기>의 핵심

특정 대목을 확대, 변형이 핵심



∴ EBS를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줄거리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EBS 작품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X)

문학은 <보기>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수!!!!

가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흥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 시험할 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어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 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으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첩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첩관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의 과제를 통과하면 얻는 지위. ㉢ 선택지

시 나 리 오

[39~41]

전쟁 후 민족의 아픔과 포용

[39~41] 시나리오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충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지문의 핵심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냐...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중 동그라미가 치진 사람 얼굴로 zoom인*.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예요. 국군 인민군 이념을 뛰어넘은 휴머니즘

전쟁과 분단

전쟁 중

남한군 → 북한군 이념의 갈등, 삶과 죽음의 문제, 전쟁의 파괴성
군인 → 민간인 이념 선택의 문제, 항수, 가난

전쟁 후 (정신적 상처)

상처 받은 자 → 가해자 복수, 이해와 용서
가해자 → 상처 받은 자 반성과 고뇌, 이해와 용서

39 뒷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1. 보타와의 대화: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2. 수혁과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알고자 함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수정 씨 // 정우진이 그런 초상화
'사라진 얼굴'은 네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예요.

EBS와 어떻게 다르니?? EBS 반영내용 확인하기

EBS <보기>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국군과 인민군, 미군이 동시에 '동막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들이 지키려는 가치는 '동막골'로 대표되는 평화와 인간애이며, 이를 위해 이념 대립과 정치적 목적은 제거된다.

EBS와 9월 시나리오의 핵심

전쟁과 민족의 아픔, 평화와 인간애라 관련한 동일 주제 제시

∴ EBS를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비슷한 주제의 작품이 연계된다.

EBS 작품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X)

문학은 <보기>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수!!!!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지문에서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와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을 통해 확인 가능
- ②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지문에서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말할 수 없었겠지'를 통해 확인 가능
- ③ ㉢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지문에서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를 통해 확인 가능
- ④ ㉣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지문에서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 ⑤ ㉤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진실의 대가로 '수혁'이 '소피'를 만나러 온 것 X
지문에서 '영문을 모르고 불려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를 통해 본래 '수혁'은 '소피'와의 만남에서 목적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목소리'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문에서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을 통해 사진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지문에서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의 얼굴로 zoom'을 통해 소피의 아버지를 확인
- ④ ㉤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지문에서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정한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 ⑤ ㉥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을 통해 사건의 맥락이 인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내 전체가 아닌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을 화면에 담아야한다.

현대소설

[42~45]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
지식인은 무기력하다.

[42~45] 현대소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지문에서 확인 :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관리하여 보는 것

㉡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지문에서 확인 : 취직 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불쾌한 감을 느낀 것

㉢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지문에서 확인 : 신문 외에는 활자라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

㉣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지문에서 확인 :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탄내어 사들인 책들이 무거움 같았어

㉤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의 내용과 일치

지문에서 확인 :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빛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물론 궁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 자기만의 세계에 대한 미련을 보임

하숙방

1. 문기 소리라 반대 냄새라 반들거리다가 새침이 뛰어오르는 벼룩이 기다릴 뻔인 바쁜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때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
2.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사진관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때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은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 //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때연과 발걸음에 나뉘어 질어서 개똥개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

㉡ ㉡은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1. 병일이 장부의 시재들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헤었다. 병일이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인 현금이 맞맞아 떨어질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

2. 사무실 따루를 쏘고, 훑치고, 손님에게 차다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납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 ㉢은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피곤한 병일은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증명거렸다

㉣ ㉣은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물들 요즈음에는 무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빛발에 씻겨져서 있는 눈가를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멍이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휴신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칙칙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

㉤ ㉤은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은 벌써 길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45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치진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경이 드러나는 곳이다. 사무실

㉢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사무실

㉤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사무실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
지식인은 무기력하다.

[42~45] 현대소설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여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정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EBS와 어떻게 다르니?? EBS 반영내용 확인하기

EBS 독서지문

근대화
지식인

그의 작품 「비 오는 길」은 급팽창하던 1930년대 평양의 도시 풍경과 의식 변화를 다루고 있다. 변두리 하숙집에서 도시의 공장에 2년째 도보로 출근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던 지식인 병일의 유일한 낙은 책과 독서이다. 이런 병일에게 출퇴근길에 있는 사진관 주인과의 만남은 일상에 일시적인 동요를 가져온다. 장맛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진관의 주인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속물이지만, 병일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잠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관 주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병일은 '독서에만 매진하겠다'는 관념을 굳히며 이야기가 종결된다.

EBS 독서 지문의 핵심

근대화의 지식인이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진사라의 만남을 통한 내적갈등과 해소

9월 평가원 <보기> 의 핵심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 불안
↓
현실 적응에 어려움
↓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고자 함, 그러나 만족하지 못함.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외치는 이중적 감정.

일제 치하 및 해방 전후

소시민

- 농민(소작인) → 지주(친일) 소작료, 가난, 집단적 저항
- 노동자(공장) → 사용자(친일) 임금, 가난, 집단적 저항
- 가난한 민중 → 근대화(물질중시) 가난, 소외

지식인

- 지식인 → 부조리한 사회(일제, 친일, 민중) 비판, 무기력
- 지식인 → 근대화(물질) 물질 거부, 무기력

기회주의자

- 기회주의자+ 친일, 친미 부정적 행위 > 갈등, 풍자·비판

★ ∴ EBS를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EBS 지문에 등장한 곳이 출제되지 않는다!!!

- 1. 소설의 경우 EBS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
- 2. EBS에 수록된 부분 + 중략 + 새로운 부분

EBS 작품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X)

문학은 <보기>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수!!!!